

의미역조사 ‘로’의 문법화와 어휘화

-경남방언을 중심으로

양지현* · 황병순**

|| 차례 ||

- I. 들머리
- II. 의미역조사 ‘로’의 문법화
- III. 양태조사 ‘로’의 어휘화
- IV. 마무리

【국문초록】

의미역조사 ‘로’는 후행 동사의 수단·도구, 방향이나 경로, 지위·신분, 원인이나 이유, 변화의 결과(변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조사 ‘로’는 공용어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지만, 경남방언에서는 더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로’는 경남방언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문법화한다. 하나는 의미역 대신 문장 구조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구조격조사)인 대격조사로 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역이 추상화되어 선행성분의 의미 기능을 강조하는 양태조사로 쓰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의 문법화는 ‘로’가 지닌 의미역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닌 ‘로’는 선행성분과 유사한 의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양태 기능을 하는 ‘로’는 선행성분에 첨가된 채로 회색화하여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기도 한다. 즉, ‘-니까’, ‘-어서’, ‘-게’, ‘-면서’와 같은 어미와 어울려 쓰이다가 어미가 되거나(준어휘화), 일부 부사나 감탄사(응답말)와 어울려 쓰이다가 어휘화한다. ‘로’가 첨가된 형태가 어휘화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로’의 선행성분과 ‘로’와 의미적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제1저자,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문법화, 어휘화, 양태조사, 의미역조사, 구조격조사, 대격조사

I. 들머리

국어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조사 가운데 하나가 ‘로’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그 결과로 많은 연구 성과도 거두었다. 공용어에 쓰이는 ‘로’와 관련해 남기심·김지은(1992), 최교진(1997), 김지은(1998), 고경태(1999), 박정운(1999), 이윤하(2005), 김혜영(2018) 등에서는 ‘로’의 의미 기능이나 용법을 기술하였고, 황국정(2015)에서는 ‘로’를 논항구조와 관련지어 기술하였다.

조사 ‘로’는 공용어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지만 여러 방언에서는 더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된다(이기갑 : 2014). 이러한 관계로 방언의 ‘로’도 학계에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 왔다. 정영주(1989)와 황국정(2011)에서는 진주 방언과 경주 방언의 ‘로’가 목적격조사로 쓰임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진은(2008)과 황병순(2008, 2010, 2012)에서는 방언의 ‘로’를 문법화와 관련지어 기술하기도 하였다.

경남방언에서는 아래 (1)이나 (2)에서와 같이 ‘로’가 매우 생산적으로 쓰인다.

- (1) ㄱ. 호랑이가 발목을 문 안으로 들이밀었을 때 도끼날로 내리쳤다.
 (가족을 지킨 사람과 외발이 된 호랑이, 산청)
- ㄴ. 논개 할머니가 애당초 진주로 올 때게(때에) 김천일 장군하고 그래
 진주로 넘어왔단 말이제.(논개, 진주)

- (2) ㄱ. 시커먼 중이로 하나 꺼내더라 말입니다.(거짓말 잘하는 사위 구하기, 의령)
- ㄴ. 저 건네 장자(長者) 집에서로 큰딸이 왔어.(구령선비, 거제)
- ㄷ. 한 철만 걷어 먹고 더는 못 먹거로 하더라.(신기한 축지법을 쓰는 마을 혼장, 산청)
- ㄹ. 그거를 참말로 잡을 수가 없어요.(강철이 잡기, 거제)

(1)의 ‘로’는 공용어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로’이다.¹⁾ (1ㄱ)에서는 ‘로’가 ‘수단·도구’ 기능으로 쓰이고, (1ㄴ)에서는 ‘로’가 ‘방향’ 기능으로 쓰인다. 그런가 하면 경남방언에서는 ‘로’가 (2)에서와 같이 기능이 변이되어 쓰이기도 한다. (2ㄱ)에서는 ‘로’가 목적격조사(대격조사)로 쓰이고, (2ㄴ)에서는 ‘로’가 양태 의미(강조)로 쓰인다. (2ㄷ)과 (2ㄹ)에서는 (2ㄴ)의 ‘로’가 어미나 어휘에 첨가되어 새로운 방언 어미나 어휘의 구성소로 쓰이기도 함을 보여 준다.

경남방언의 ‘로’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로’의 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개 경남방언에 쓰이는 ‘로’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기술한 연구이거나 ‘로’의 기능 변이에 대한 기술이 설명력을 갖추지 못한 연구였다. (1)의 ‘로’가 (2)에서와 같이 쓰일 수 있게 된 데는 (2)에 쓰인 ‘로’의 의미 기능이 (1)의 ‘로’가 지닌 의미 기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뿐더러 (2)의 ‘로’에 선행하는 형태가 ‘로’의 의미 기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즉, ‘로’가 (2)에서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1)의 ‘로’가 지닌 의미가 (2)에서 추상화(문법화)되어 쓰였기 때문이고, (2)에 ‘로’가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은 ‘로’에 선행하는 형태의 의미가 ‘로’의 의미

1) ‘로’는 일반적으로 수단·도구, 방향이나 경로, 지위·신분, 원인이나 이유, 변화의 결과(변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기삼·김지은(1992) 또는 박정운(1999) 등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생각에서 경남방언 ‘로’에 담긴 문법을 기술함으로써 경남방언의 ‘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의 변화 과정인 문법화 현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1)의 ‘로’가 (2ㄱ)이나 (2ㄴ)의 ‘로’와 같이 쓰이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2ㄴ)의 ‘로’가 (2ㄷ)이나 (2ㄹ)에서와 같이 쓰이는 현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수용할 경우 전자를 “의미역조사 ‘로’의 문법화”라 한다면 후자는 “양태조사의 어휘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의 논의를 위한 대상 자료는 대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기록된 것이다.²⁾

II. 의미역조사³⁾ ‘로’의 문법화

현대어의 의미역조사 ‘로’는 후행동사의 수단·도구, 방향이나 경로, 지위·신분, 원인이나 이유, 변화의 결과(변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이는 경남방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ㄱ. 호랑이가 발목을 문 안으로 들이밀었을 때 도끼날로 내리쳤다.

2) 구비문학대계에서 인용한 예문은 예문 뒤에 제목과 지명을 괄호 속에 제시하였다.

예문 가운데 제목과 지명이 없는 것은 일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경남방언이다.

3) 의미역조사는 황병순(2008)을 따른 것이다. 황병순(2008:102)에서는 기존의 격조사를 서술어에 대한 명사항의 의미역을 가리키는 의미역조사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해주는 구조격조사로 구분하였다. 전자에는 ‘로’, ‘에’ 등이 있고 후자에는 ‘이/가’, ‘을/를’, ‘의’, ‘와/과’ 등이 있다. 유사한 견해로 임동훈(2004:122)에서는 전자를 의미격조사, 후자를 문법격조사라 하였다.

(가족을 지킨 사람과 외발이 된 호랑이, 산청)

- ㄴ. 논개 할머니가 애당초 진주로 올 때께(때에) 김천일 장군하고 그래
진주로 넘어왔단 말이제.(논개, 진주)
- ㄷ. 니가 나가면, 나도 의병으로 나간다.(가시내의 유래, 창원)
- ㄹ. 내년 사월 열사흘날이든 이 피로 인해서 이 피로 인해서 좌우간 참
좋은 소식이 오겠다(개평 노진사, 하동)
- ㅁ. 요 새로 요 채로 넘어가는 재가 있는데 (구수(九藪)의 이시미(이무
기), 울주)
- ㅂ. 왕비로 변신한 매구가 이포수의 간(肝)을 먹겠다고 했는데,(강원도
이포수(李砲手)와 매구, 진양)

(3)은 경남지역에서 ‘로’가 공용어에서와 같은 용법으로 실현되는 예이다. (3ㄱ)에서 ‘로’의 의미역은 ‘수단·도구’이고, (3ㄴ)은 ‘방향’, (3ㄷ)은 ‘지위, 자격’ (3ㄹ)은 ‘원인’, (3ㅁ)은 경로, (3ㅂ)은 ‘변화의 결과’에 각각 해당된다.

그런데 경남방언에서는 ‘로’가 공용어에서와 달리 의미역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문법화되어 쓰인다. 경남방언에서 의미역조사 ‘로’가 문법화되어 쓰이는 것은 두 유형이다. 하나는 의미역 대신 문장 구조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구조격조사)인 대격조사로 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역이 추상화되어 선행성분의 의미 기능을 강조하는 양태 기능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의미역조사 ‘로’가 대격조사로 쓰이는 것을 문법화로 본 것은 의미역조사가 특정 의미(의미역)를 드러내는 것임에 비해 구조격조사는 특정 의미(의미역)를 잃은 채 ‘문장 구조 관계’라는 더 추상적인 의미 즉, 문법적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고, 의미역조사가 양태 기능으로 바뀌는 것을 문법화로 본 것은 문장에서 특정 의미(의미역)를 드러내는 의미역조사

가 문장 의미와 무관한 양태 의미(말할이의 태도와 관련된 의미)로 추상화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수용해 ‘로’의 문법화를 대격조사화와 양태조사화로 나눠 알아보기로 한다.

1. 대격조사화

의미역조사는 격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선행하는 명사항에 의미를 부여한 조사이지만 구조격조사는 단순히 구조적 관계를 드러내는 조사이다. 일반적으로 문법화란 어휘적 요소가 문법적인 요소로, 문법적인 요소가 더 문법적인 요소로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의미역조사 ‘로’가 구조격조사가 되는 것은 문법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경남방언에서는 대격조사로 ‘을’과 ‘로’가 쓰인다⁴⁾. 대개 (4)와 (5)에서와 같이 자음 뒤에서는 ‘을’이 모음이나 ‘ㄹ’ 뒤에서는 ‘로’가 실현된다.

- (4) ㄱ. 도둑질 해 가 멧동에다 대고 막 갖다 돈을 파묻어 놓았던 거로 한 짐갖다 (가난한 부부와 도둑, 거제)
 ㄴ. 거거서 점심을 시기는디, 점심 사아다가(床에다) 말이지, 은어 회평을 시기는디(16세 하동 군수 이몽덕(李夢德), 하동)
 ㄷ. 겨울에는 삼베옷을 입으며 태양을 받으며 참 시원심더(가거리, 의령)
 ㄹ. 무르팍을 탁 치면서 한단 말이가(가난뱅이와 독사의 득천, 김해)
- (5) ㄱ. 야야, 논 너 마지기 놓고, 나는, 너로 놓고 그래 글짓기로 했는데

4) 황국정(2011:261-288)에서는 경북 경주에서 대격조사로 실현되는 ‘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진은(2008:9)에서도 대격조사 ‘로’는 울진, 영덕, 영일(포항) 등 경북지역에서도 실현된다고 하였다. ‘로’는 경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북 경남권 내에서 두루 실현되는 대격조사라고 할 수 있다.

(며느리 걸고 한 시아버지의 내기, 진주)

- ㄴ. 부채로 가 헐레헐레 부치고 있습니까?”(거짓말 잘하는 사위 구하기, 의령)
- ㄷ. 딸네 집에 가이끼네, 가 가지고 딸로 보고 개가 눈물로 뚜둑뚜둑 흘리 거등. (개가 된 어머니를 부채로 만든 효자, 밀양)
- ㄹ. 아무리 물로 퍼내도 고 가운데는 말이지 그 물이 안 모리는(마르는) 기라.(중략) 용이 왜 가 올라갈라 쿠다가(가마못 등천 못한 용의 심술, 진주)
- ㅁ. 절로 나뉘이 함서로 술로 극진하게 부아서 아버지, 시암시(시아버지) 앞에 딱 부아 드린께(강고집의 아들, 거제)

그런데 아래 (6)이나 (7)에서와 같이 '로'가 위와 다른 환경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6) 왜냐하면 사십대 먹은 사람은 책으로 보고 기억하지만(똥메와 거류산 봉우리, 고성)

(7) ㄱ. 내가 닐로 잡아 무우야 되겠다(들썩 신랑과 구렁이, 진양)

- ㄴ. 뿔로 얹힌 거로요(남명선생 전설, 진양)
- ㄷ. 그래 울 엄메 울 아메가 사는데 말이요. 똥강 이걸로 주까 이걸로 주까 캐사도 탄 거는 말고 (박도령과 용녀, 김해)
- ㄹ. 우리 아버님이 저런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낫는데 저걸로 우째해야 낫을까요(아들을 삶아 시아버지 병을 고친 효부, 산청)

(6)은 경남방언에서 매우 예외적 용례이다. 경남방언에서 자음 뒤에 대격조사 '으로'가 쓰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7)은 정상적인 경남방언이다. (7)의 '닐로'는 '니(너)+ㄹ+로', '뿔로'은 '뿔+ㄹ+로', '이걸로'와 '저걸로'는 '이거/저거+ㄹ+로'로 분석된다. 즉, 이들은 명사에 대격

조사 ‘ㄹ’이 결합된 뒤에 다시 대격 기능을 수행하는 ‘로’가 결합된 것들이다. 경남 방언에서는 주로 한 음절로 된 명사나 대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 대격조사 ‘ㄹ’이 결합되어 쓰이는데 이러한 구성은 대격조사가 독립된 음절로 실현되지 않아 대격조사가 형태적으로 도상성(圖像性)을⁵⁾ 확보하지 못해 마치 대격조사가 없는 것으로 인지됨에 따라 대격조사가 ‘ㄹ’이 결합된 구성 뒤에 도상성을 지닌 대격조사 ‘로’가 다시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⁶⁾ (7)의 ‘로’가 위와 같이 설명된다면 (7)의 ‘로’도 (5ㄷ)-(5ㅂ)의 ‘로’와 같이 ‘ㄹ’ 뒤에 실현된 대격조사 ‘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이나 (7)에 드러나는 ‘로’의 예외적 표현을 위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면 경남 방언에서 ‘을’은 자음 뒤에, ‘로’는 모음 뒤에 실현되는 대격조사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로’가 대격조사로 실현되는 경우는 중세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8) ㄱ. 다숫 쏟을 因^ㅎ야 授記 불^ㄹ실씩 <月印千江之曲>

ㄴ. 내 이제 널로 인^ㅎ야 어던 이를 무려 뉘이즈물 브즈러니 <장수멸죄호 제동자다라니경18b>

(9) ㄱ. 얹홀 向^ㅎ야 齊제眉^미殺^살이 되고 <武藝諸譜>

ㄴ. 얹호로 向^ㅎ야^ㅁ 齊제眉^미殺^살勢^ㅅ셔늘 <武藝諸譜>

5) 도상성(圖像性)은 인지문법에서 자의성과 대립적 개념으로서 언어의 구조(형태)와 의미(내용)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말한다(임지룡, 2018:395-405).

6) 이는 주격조사 ‘가’가 모음 뒤에 실현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격조사도 “공자 | 가^ㄹ샤터 ...”에서와 같이 ‘공제’에 실현된 주격조사가 형태적으로 도상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도상성을 지닌 ‘가’가 모음을 지닌 명사 뒤에 결합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다.

7) 정영주(1989:36)는 가림자리토씨(대격조사) ‘을/로’가 상보적 분포를 이룸을 밝혔다. 이 논의에서는 현대어에 ‘ㄹ’이 ‘을’에 ‘ㄹ’이 첨가된 것(통시적 변천을 거친 것)으로 보았으나 변천 과정에 대한 논의는 없다.

- (10) ㄱ. 예춏씨 줍을 녀허 <救簡1:13a>
 ㄴ. 놀카를 갈호로 衣葉中에 녀허 <月釋25:23a>
- (11) ㄱ. 西南人 뭏그들 너머가리라 <杜詩9:15b>
 ㄴ. 석식 후 들갓골로 너머가시다 <병자64>

그럼 ‘로’가 대격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로’가 구조격조사로 문법화가 가능했던 것은 ‘로’의 의미역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로’가 대격조사로 쓰인 경우는 대격조사에 선행하는 명사가 ‘로’의 의미역인 수단·도구, 방향이나 경로, 지위·신분, 원인이나 이유, 변화의 결과(변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8)-(11)에서 동일한 서술어가 대격조사 ‘(으)르’을 취한 명사항과 쓰이기도 하고 의미역조사 ‘(으)로’를 취한 명사항과 쓰이기도 한다. 이는 서술어가 취한 대격 명사항이 방향, 수단, 도구 등의 의미역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항으로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⁸⁾ 경남방언에서 대격조사로 쓰인 ‘로’도 이와 같은 원리로 ‘로’가 결합된 명사항이 대격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항으로 쓰이지만 ‘로’의 의미역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항으로도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서 (5)에서도 (5ㄱ)의 ‘글짓기로’는 대격인 ‘글짓기’

8) 위의 예에서 (11)은 황국정(2005:261)에서 제시된 예를 인용한 것이다. 황국정(2005:274)에서는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논항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동 타동사로 분류되는 동사 가운데 일부가 후대 문헌에서 지향점(방향)의 ‘NP로’ 논항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NP이 NP를 V’의 타동사 구문이 ‘NP이 NP로 V’의 타동사 구문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논항 실현의 변화로 인해 ‘를’과 ‘로’의 격 교체가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그에 해당하는 어휘는 찾아가다(尋), 끌다(拖), 기울이다(傾), 넘어가다(越), 돌리다(輪), 데려가다(領), 밀다(推), 던지다(擲), 벌리다(開), 숨기다(隱), 꺾다(折), 내쫓다/내치다(斥), 날리다(飛), 대다(著), 나누다(分) 등이다. 이 논의를 통해서도 ‘를’과 ‘로’의 격 교체는 ‘로’의 의미역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로’가 구조격조사로 문법화하게 되는 한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 ‘내기의 수단’으로, (5ㄴ)의 ‘부채로’는 ‘헐레헐레 부치는’ 수단으로, (5ㄷ)의 ‘딸로’는 ‘딸’이 ‘자식이란 신분’으로, (5ㄹ)의 ‘물로’는 ‘물’이 ‘용이 되는 수단’으로, (5ㅁ)의 ‘술로’는 ‘술’이 ‘효의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격조사 자리에 ‘로’가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미역조사 조사 ‘로’가 위와 같이 대격조사로 쓰이게 된 것은 대격 명사항이 의미역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의미역조사 ‘로’가 대격조사로 쓰이는 것은 의미역조사 ‘로’가 문법화되어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역조사가 구조격조사(문법격조사)인 대격조사로 쓰이는 것은 의미가 더 추상화되어 쓰이는 것이다. 문법화 원리에 따르면 역으로 구조격조사인 대격조사가 의미역조사로 문법화되어 쓰이는 경우는 없다.⁹⁾

2. 양태조사화

의미역조사 ‘로’는 다른 의미역조사와 어울려 쓰이기도 한다. 조사를 겹쳐 쓰는 것은 흔한 일이지는 않지만, 의미역조사가 중복되어 쓰이지는 않는다. 일문일격의 원리에 따라 한 문장의 구성 요소인 명사항이 두 의미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미역조사 ‘로’는 공용어에서도 의미역조사 뒤에 중복되어 실현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의미역조사가 중복된 ‘한테로’, ‘에게로’, ‘에로’가 등재되어 있다.

- (12) ㄱ. 나는 반가운 얼굴로 선생님한테로 뛰어갔다.
 ㄴ. 갑자기 모두의 관심이 나에게로 쏟아졌다.

9) 조사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황병순(2008) 참조.

의미역 조사 뒤에 의미역조사 ‘로’가 중복된 예는 경남방언에도 많이 쓰인다.

- (13) 가. 그래 고창녕한테로 갔다 말이다. 씨임(수업)이 가지가 돋은 놈(고창녕, 머슴 장가보내다, 진양)
 나. 마누라 하고 얘기는 절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님이 잡아갈까 봐서(거지 먼산이, 사천)
 다. 그분이 집도 없는 그 전통문이라는 그 굴에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솔암 전설, 김해)
 르. 이 영감 할름이 둘이서로, 네 방구석을 간단 말이제. (육심쟁이 세 아들, 거제)

(13)은 의미역조사 ‘한테(수여격)’와 ‘에(처격)’, ‘에서(처격)’, ‘서(행위격)’에 각각 의미역조사 ‘로’가 중복되어 쓰였다. 하나의 명사항에 의미역 기능을 하는 조사가 둘 이상 쓰일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조사가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역 기능을 수행하거나 두 의미역조사 가운데 하나가 의미역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자를 합성조사화라고 한다면 후자는 한 의미역조사가 기능이 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작’의 의미 기능을 지닌 ‘에서’가 전자의 예라면 ‘로’가 중복된 ‘에게로/한테로’, ‘에서로/어로’, ‘서로’는 후자의 예이다.¹⁰⁾ 즉 ‘에서’는 ‘서’가 생략되면

10) 국어사전에는 의미역조사 중복 구성 대한 문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듯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어로’를 “격 조사 ‘에’가 위치를 나타낼 때 거기에 방향성을 주기 위하여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한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한테로’와 ‘에게로’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한테/에게’와 ‘로’가 결합한 말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 보면 ‘어로’는 의미역조사에 의미역조사 ‘로’가 첨가된 것으로 보고 ‘한테로/에게로’는 두 조사가 복합되어 하나의 합성조사를 형성한 것처럼 기술한 듯하나 이들 간의 차이를 구분해 기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에’가 ‘에서’의 의미역을 수행할 수 없어 비문이 되지만 의미역조사에 ‘로’가 중복된 형태는 ‘로’가 생략되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이는 곧 ‘에게로/한테로’, ‘에서로/어로’, ‘서로’에서 의미역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는 ‘로’에 선행하는 조사이고 이들 조사에 첨가된 ‘로’는 의미역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로 변했음을 가리킨다.

그럼 ‘에게로/한테로’, ‘에서로/어로’, ‘서로’의 ‘로’는 어떤 의미역조사 뒤에 결합되고 이 경우의 ‘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로 바뀌는가?

의미역조사 ‘로’에 선행하는 의미역조사는 ‘에게/한테/께’, ‘에’, ‘에서’, ‘서’ 등이다. 이는 곧 이들 조사가 결합되는 명사항이 수여격, 처격, 행위격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명사항의 이러한 의미역은 ‘로’의 의미역과 직결된다. 즉, 수여격이나 처격, 행위격은 그 자체로 방향성을 지닐 수 있다.¹¹⁾ 방향성의 이러한 특성은 방향성이 수여격이나 처격, 행위격에 덧붙어질 수 있는 의미 기능임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수여격이나 처격, 행위격이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데 수여격이나 처격, 행위격을 드러내는 의미역조사에 방향성을 드러내는 ‘로’가 중복되어 실현되면 ‘로’는 선행 의미역인 수여격이나 처격, 행위격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강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수여격이나 처격, 행위격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역조사 뒤에 ‘방향’이라는 의미역을 지닌 ‘로’가 첨가될 수 있는 것은 ‘로’가 첨가됨으로써 선행 의미역조사의 의미역(수여격, 처격, 행위격)이 방향성과 함께 쓰여 의미역(수여격, 처격, 행위격)이 더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

11) 황국정(2011:273)에서 ‘로’의 대상성과 관련하여 경주 지역어를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제시된 예 중에는 수여격의 ‘한테(에게)’가 쓰일 자리에 ‘로’가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향·방향’과 관련된 ‘로’가 수여격조사를 대신하여 쓰였는데 이도 수여격이 ‘로’와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예) ㄱ. 경북대학생이 야로 글로 가르쳤는데

나. 개로 밥 줄라 크이.... 줄 수는 없고,

라 할 수 있다.

‘로’가 의미역 기능을 잃고 위와 같이 강조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은 ‘로’가 의미역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가 아니라 선행 의미역을 강조하는 조사 즉 양태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조사로 문법화되었음을 뜻한다.¹²⁾ 문장 의미를 드러내는 의미역이 말할이의 태도(강조)를 가리키는 뜻으로 변하는 것은 의미 추상화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양태조사 ‘로’의 어휘화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의미역조사 뒤에 실현된 ‘로’는 선행 의미역조사의 기능을 강조하는 양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로’는 경남방언에서 선행 형태에 화석화되어 새로운 문법 형태(준어휘화)나 어휘 형태(어휘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선행 형태가 문법 형태일 경우 새로운 방언형 문법 형태를 형성하고 선행 형태가 어휘일 경우 새로운 방언형 어휘를 형성한다. 경남방언에서 ‘로’의 어휘화는 문법 형태를 형성하는 어미화와 어휘 형태를 형성하는 어휘로 구분할 수 있다.

1. 어미화

경남방언에서는 ‘로’가 특정 어말어미와 어울려 쓰인다. ‘로’가 어울릴 수 있는 어미는 ‘-게’, ‘-어서’, ‘-니까’, ‘-면서’이다. ‘로’는 초기에 이들

12) 이 글의 양태조사는 선행 연구(이진은, 2008:13)에서 첩사라 기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첩사라는 말은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양태조사’라고 하였다. 이 글과 같이 양태조사로 본 논의에는 황병순(2010:219)이 있다.

어말어미(‘-게’, ‘-어서’, ‘-니까’, ‘-면서’) 뒤에 결합되어 선행 어말어미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다가 화석화하여 강조 기능을 잃고 선행 어말어미의 방언형으로 쓰이기도 한다. 어말어미 ‘-게’, ‘-어서’, ‘-니까’, ‘-면서’ 뒤에 조사 ‘로’가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로’에 선행하는 어말어미가 ‘로’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 -거로¹³⁾

공용어에 ‘-게’의 경남방언형은 ‘-거로’, ‘-그로’, ‘-구로’, ‘-고로’로 나타난다. 공용어에서 ‘-게’는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어말어미이다. ‘-게’의 뒤에는 ‘는’, ‘도’, ‘까지’ 등의 보조사(문맥조사)를 첨가하여 앞말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한정하여 쓰기도 하는데 경남방언에서는 ‘-게’가 쓰일 자리에 의미역조사인 ‘로’가 첨가된 ‘-거로’, ‘-그로’, ‘-구로’, ‘-고로’ 형이¹⁴⁾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의 방언형인 ‘-거로’, ‘-그로’, ‘-구로’, ‘-고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에 ‘로’ 결합된 ‘-기로’의 변이형이다.

(14) ㄱ. 막 뺑뺑이로 돌고 막 잠도 문 자거로 밟아재기고 이렇다 말이다.(어사 박문수, 거창)

나. 나도 하나도라. 쪼깨잉거 하나도라 내 떡그로.”이랑께네.(제자에게 도술도 가르쳐 준 선생, 창원)

ㄷ. 오문 너거 형수가 어짜는고 보거로 온나(착한 제수, 김해)

13) 경남방언에서 어말어미는 여러 이형태를 지니는데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를 임의로 대표형으로 제시한다.

14) ‘-거로’, ‘-그로’, ‘-구로’, ‘-고로’는 ‘-게’의 경상방언(동남방언)형인데 이들 방언형이 경상방언의 하위 방언권에 따른 이형태인 듯하나 방언 자료를 확인해 봐도 하위 방언권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르. 쫄매만 도라고. 단 죽이라도 미음이라도 끓이(끓여) 묵거로 줌 도라.”
(남의 복을 빌어 잘 산 사람, 의령)

- (15) 가. 어떤지 속히, 밥을 식히 받거로 하라고.(명풍수 도선과 박상육, 진양)
 나. 그래가지고 딱 위에 한 첩만 걷어 먹고 더는 못 먹거로 하더래.(신기한 축지법을 쓰는 마을 훈장, 산청)
 다. 그 남편은 혼차 가거로 하고 그 여자는 풍병, 나병 환자 아니니께, 당신은 다른데 가 얻어 먹고 (개가열녀(改嫁烈女), 거제)
 르. 아바이는 몬 가거로 하거등. 또 가이께, 또 구리이를 낳아 났거등.(구령 선비, 의령)
 미. 선상은 날 줄은 알몬서도 몬 채리 주거로 한 긴데, (남명선생 전설, 진양)
 비. 그래 얼굴을 보몬 대략 알거로 카모. 그래 거어서 여러 가지로 인자 이야기를 다 나눠서 참 확실한 표시가 들어난 기라(가문을 생각하는 스님, 진주)

더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경남방언에서는 (14)나 (15)에서와 같이 '-거로'가 주로 동사에 실현된다. (14)는 '-거로'가 접속어미로 쓰이고 있는 예이고 (15)는 공용어의 '-게 하-'구성의 '-게'로 쓰인 예이다. 경남방언에서 '-거로'가 주로 동사에 실현되는 것은 '-로'의 의미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로'는 후행동사에 대한 수단·도구, 방향이나 경로, 지위·신분, 원인이나 이유, 변화의 결과(변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로'가 '-게'에 결합된 것은 '-게'에 결합된 '로'가 '(변화의) 방향이나 경로'를 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게'의 의미 기능인 '후행 상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이란 의미가 '어떤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때,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는 '-게'에 '로'가 결합되면 '(변화의) 방향이나 경로'란 의미가 덧붙여 '어떤 방향이나 경로의 상태로

변화'라는 의미를 뜻하게 된다. 이는 곧 '로'가 '-게'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거로'의 '로'는 의미역조사가 아니라 선행 어말어미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 강조하는 양태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앞에서 경남방언 '-거로'가 주로 동사에 결합되어 쓰인다고 하였다. '-거로'가 변화를 표현하는 동사에 결합되어 쓰이는 것도 '-거로'의 '로'가 (변화의) 방향이나 경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경남방언에서 '-거로'가 동사에만 결합되어 쓰이는 것은 아니다. 경남방언에서 (16)에서와 같이 '-거로'가 형용사에 결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 (16) ㄱ. 영 망해 뿌고 마누래도 죽어 뿌고, 딸 그 좃거로 집 지아가 살림내 놓은 것도 다 망해 뿌고 (신신 된 딸을 찾아갔던 아버지, 울주)
- ㄴ. 그 사람이 거서 간판을 크거로 하나 써 붙여서 말이지.(그림의 열녀, 의령)
- ㄷ. 맷고로 저 꼬치까리로 마이 여서 맷고로 하라(16세 하동 군수 이몽덕(李夢德), 하동)
- ㄹ. 도디골이라 쿠는 골짜에다가 저, 지와집을 쫓그맷그로 지이 가이고, (도디골의 유래, 의령)
- ㅁ. 참 골구로 끼미 가이고 소복 단장을 해가 입고(현명한 신부, 거제)

(16)의 '-거로'는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가 변화를 드러내는 의미를 드러낼 때 사용된다. 하지만 경남방언에서는 '-거로'가 주로 동사에 쓰이는 어말어미이다. 이는 아래 예에서와 같이 형용사 뒤에 파생접미사 '-이'가 실현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용어에서 형용사에 '-게'가 실현되지만 경남방언에서는 파생접미사 '-이'가 실현된다. 경남방언인 (17)의 '예쁘장하이'와 '크담하이'는 공용어에서 '예쁘게'와 '크게'로 실현된다.

(17) ㄱ. 계집애가 예쁘장하이 생겼다.

 ㄴ. 계집을 크담하이 만들어라

‘-게’의 경남방언형인 ‘-거로’, ‘-그로’, ‘-구로’, ‘-고로’는 처음 사용될 때는 위와 같이 ‘로’가 ‘-게’의 의미를 강조하는 양태조사로 첨가되어 쓰였다. 그러나 점차 ‘로’의 의미가 약화되어 선행성분에 화석화된 채 어미화되어 ‘-거로’가 ‘-게’의 경남방언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어서로

공용어의 ‘-어서’는 경남방언에서 ‘-어서로’, ‘-어서러’ 형태로 쓰인다. ‘-어서’에 ‘로’가 결합된 것은 ‘로’가 ‘-어서’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로’가 ‘-어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으로 쓰였음을 가리킨다. 어말어미 ‘-어서’의 의미인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시간적 선후나 이유, 수단·방법’ 등은 ‘로’의 의미역과 유사하며 이는 ‘-어서’에 ‘로’가 자연스럽게 첨가해 쓰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예와 같이 ‘로’가 첨가된 ‘-어서로/아서로’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 (18)은 시간적 선후와 관련한 ‘-어서로/아서로’가 쓰인 예이고 (19)는 이유나 근거를, (20)은 수단이나 방법을 드러내는 표현에 쓰인 ‘-어서로’의 예이다.

(18) ㄱ. 외아들이 흔적도 없이 마 증님밭에 죽을 거 아이요? 그래서 찾아서로 똑 그 사람을 벼슬로 내주고,(요승을 물리친 사람, 거제)

 ㄴ. 방에 들어가서로 저거 아바니 병들어 누워 있는 것을 갖다가 물어 내 가지고 마당에다가 때기를 쳐 직이(죽여)빼리고, (남해 진사범 전설, 김해)

 ㄷ.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일이 잘 되어 간다. 돼서로 고마 부자가 돼졌네 (명당터, 거제)

르. 저거 친지들이고 마 친척들이고 동네 사람들 모아서로 이래 가지고 참 막 큰 잔치를 하고 이랬어.(총각과 과부, 거제)

- (19) ㄱ. 그래. 가만히 본께 안 되겠해서로 도둑질 해 가 멧등에다 대고 막 갖다 돈을 파 묻어 놓았던 거로 (가난한 부부와 도둑, 거제)
 ㄴ. 자부가 왔는데 미안해서로, 아무것도 저녁에 밥할 끼 없다 말이지. 그래 전신을 디비 본께 이 콩보리, 옛날 보리 그 지다는 보리가, 서너 홉이나 되더라고. (꼴뚝각시와 골생원, 거제)
 ㄷ. 인자 천도 벼슬을 못 해서로 마 구렁이가 돼서 그래 기 나가고 집도 앉것도 없더랍니다.(득천 못한 구렁이, 거제)
 ㄹ. 조선에 여서(여기에서) 못 살아서러 일본에 떠 갔거든. (등신부부, 김해)

- (20) ㄱ. 부엌에 부둑 우에다가 심어 놓고 항상 때때로 물을 취서로 그 꽃을 길렀답니다.(애고개, 거제)
 ㄴ. 항상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항상 녀의 집을 살아서로, 머슴살이를 하여서 돈 백 냥씩 가 오모(오면) (병신 아들의 지혜, 거제)
 ㄷ. 구여우로 취이서로 평화로 살다가 가졌입니다.”(구여시를 물리친 사람, 거제)
 ㄹ. 그 강을 막아서러 농사를 질라고(지을라고) 이래 큰 강을 막후는데(가덕도 전설, 김해)

경남방언에서는 아래 (21)과 같이 ‘로’가 첨가되지 않은 형태도 쓰이는 하나 이는 드문 현상이다. (21ㄱ)은 일이 일어난 순서를, (21ㄴ)은 이유 원인을, (21ㄷ)은 수단 · 방법을 드러내고 있다.

- (21) ㄱ. 인자 그 굴을 찾는다 말이지. 굴을 찾아서 떡 찾아 들어간께, 총이 막 굴 안에 꼭 찾아 (강원도 포수 이야기, 거창)
 ㄴ. 저게 입실도 못하고 늦어서 횡하고 왔습니다(과거에 낙방하고도 대감

의 사위가 된 선비, 함양)

- ㉔. 칼로 가지고 와서, 짚어서, 가져가서로 고아도 목는 사람도 있고 (강철이 잡기, 거제)

요컨대, 경남방언에서는 ‘-어서/아서’의 쓰임보다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는 형태인 ‘-어서로’의 쓰임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 ‘로’가 어말어미 ‘-어서’와 유사한 의미역을 지녀 입말에서 화자가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자 할 때 어울려 쓰이다가 ‘로’가 ‘-어서’에 화석화된 채 경남방언에서 하나의 어미로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ㄴ께로

어말어미 ‘-니까’는 경남 방언에서 ‘-ㄴ께’, ‘-ㄴ께’, ‘-이께’, ‘-이까’, ‘-니끼’, ‘-ㄴ께네’나 이들 어말어미에 ‘로’가 결합된 ‘-ㄴ께로’, ‘-ㄴ께로’, ‘-이께로’, ‘-이까로’, ‘-니끼로’, ‘-ㄴ께네로’로 실현된다. 어말어미 ‘-니까’는 선행명사항이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거나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쓴다. 어말어미의 이런 의미와 관련하여 이 역시도 유사한 의미역(이유, 원인)을 지닌 ‘로’가 선택되어 첨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ㄴ께’, ‘-ㄴ께’, ‘-이께’, ‘-이까’, ‘-니끼’, ‘-ㄴ께네’¹⁵⁾ 형과도 혼용하여 쓰이나 대체로 ‘로’가 붙은 ‘-ㄴ께로’, ‘-ㄴ께로’, ‘-이께로’, ‘-이까로’, ‘-니끼로’, ‘-ㄴ께네로’ 형으로 쓰인다.

15) 황병순(2008:107), (2012:16)에서는 ‘-ㄴ께로’를 ‘-니까+에’에 ‘로’가 첨가된 형태로 보고 있다. ‘-ㄴ께네로’ 역시 ‘-ㄴ께+느+에’에 의한 ‘-ㄴ께네’에 ‘로’가 첨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ㄴ께’이든, ‘-ㄴ께네’이든 ‘-니까’의 의미로 완전히 굳어진 형태이며, 여기에 강조 기능을 하는 ‘로’가 덧붙여 쓰이다가 어미로 화석화된다고 보았다.

- (22) ㄱ. 시엄 날 욕심으로 꺾꺾 꺾꺾 씹다가 물을 마시라 칸께 꾸릉네가 어떡
키 나던지 고만 기가 찬 기라.(강감찬 장군, 거창)
- ㄴ. 그러구로 한 및 해 지넹께 머 참, ‘손을 좀 대도 될란가.’ 싶었던가,
그 참 뻔핀되는 분이 온께 아이고 어땡기 반가와 하던지(강산 김씨
시조 할머니, 거창)
- ㄷ. 제일 처음에 시집을 간께네, 시집간 사흘만에 불로 내 줌서르(6대까
지 내려온 불씨와 산삼, 진양)
- (23) ㄱ. 그래 그 잿먼당아 떡 가이께로, 아, 웬 선배가 하나 처연시리도 고마
오는 기라(간부에 죽은 선비의 혼령, 하동)
- ㄴ. 이조 압록강에 떡 달아 가지고 오이까로, 멀라 키는 기 아이라. 이여송
이 오늘 뭐라 키는 기 아이라.(임진왜란 이야기, 거창)
- ㄷ. 살고로 혈라고 그 돈을 지이 올리 보냈던 모녕이라. 보내 노이께로,
야! 고마 그러고라서 당채 그 이듬해 봄이 다가와도 안 갚네 (16세
하동 군수 이몽덕(李夢德), 경남 하동)
- ㄹ. 처녀가 들어간께로 여자 하나가 발발 떨민서 밖애를 못 나와. 그래,
(김정승 딸과 이정승 아들, 거창)
- ㅁ. 내가 그 소를 한 마리 그때 몰고 갔던 소도독놈이니끼로 소를 본인을
돌려 주겠다고 몰고 왔다(소도독 이야기, 거창)
- ㅂ. 꿈을 꾸인께로 꿈에 선몽을 해요. [생각하는듯] 그러다가, 그래가이
고. 꿈을 꾸어 선몽을 허기로,(간부에 죽은 선비의 혼령, 하동)
- ㅅ. 떡 좀 돌려, 그래 떡을 좀 돌려 칸께네로, (꼬마 신랑에게 창피 당한
이야기, 김해)

(22)는 ‘로’가 첨가되지 않은 형태이고 (23)의 예는 ‘로’가 첨가된 형태이다. ‘로’가 첨가된 형태인 ‘-ㄴ께로’는 뒤 휴지(쉽)를 둠으로써 앞말을 강조하거나,¹⁶⁾ 선행절이나 후행절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여 쓰인다. 즉

16) 이진은(2008:18)에서는 ‘로’가 결합하는 발화의 상황이 강조 기능이 있는 문맥조사

‘로’가 쓰인 말은 말할이가 자신의 발화를 강조하고자 할 때 주로 나타난다. 경남방언에서 ‘-ㄴ께로’는 ‘-ㄴ께’ 형태와 현재 혼용하여 쓰이고 있다.

4) -면서로

공용어의 ‘-면서’는 경남방언에서 ‘-면서’, ‘-문서’, ‘-민서’, ‘-(으)로서’ 형태나 어말어미에 ‘로’가 결합된 ‘-면서로’, ‘-문서로’, ‘-민서로’, ‘-(으)로서로’, ‘-(으)로서로’ 형태로 나타난다.

‘-면서’는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서로 맞서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즉 ‘-면서’는 주체가 한 쪽 방향으로 움직임이나 사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잇따르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면서로’는 ‘-어서로’와 마찬가지로 ‘로’의 의미역인 ‘일이 진행되는 방향, 경로’와 관련해 ‘-면서’ 뒤에 첨가하여 앞말을 강조하면서 쓰다가 어미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4) ㄱ. 그즈 아버지 제사하러 가면서로 제삿밥 먹으로 가니께는 오줌 그릇에
다 밥을 담아줘서 (귀신의 대화를 엿들은 소금장수, 산청)
- ㄴ. 쌍계사로 가는 질로 가면 봐여요. 질로 가문서로 봐도 봐이요, 거가.
(쌀이 나온 약수터, 하동)
- ㄷ. 장군들이 술로 묵고 술로 장군술로 해놓고 무면서로 지금 비가 오면
거기 늦종기 소리가 난다꼬 그 전설이 있어예.(길 잘못내서 망한 내원사, 산청)
- ㄹ. 마루 바닥에 곤장을 탕 때립서로, “이놈들 일년 큰 수싯대도 맘대로 못
후는 놔들이, 내(나이가) 십육년이나 큰 내를 누가 후올라 해 되나?”
그만 내리 야단이더란기라. (16세 하동 군수 이몽덕(李夢德), 하동)

‘는’이 결합하는 상황과 동일하며, 말할이가 들을이에 대해 ‘주의환기’의 필요를 느끼거나 선행명제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결합한다고 하였다.

- ㄱ. 이놈이 한 잔, 술만 흥썬 쳐묵고 나감시로, 조심 조심해가 몸을 이리 빗끼가, 살짝 몸이 안 당구로 해가 나가빠거든. (과부와 며슴, 하동)
- ㄴ. 영감은 마 술이 채 가지고 알아. 알민서로 모리는 체하고 인자 외면하고 있는데(소용없는 딸들, 밀양)

- (25) ㄱ. 그래 그거 갈치 준다꼬 절뚱절뚱 뛰디라 썼고 밥을 떠 무면서 입맛을 다시 썼거당.(마누라 길들인 이야기, 거창)
- ㄴ. “아이고, 이걸 열어 가지고 있어가지고…”카문서, 불에 가지고 살아 뾰다.(구렁덩덩 신선비, 울주)
- ㄷ. 백여순테, 그래 그때는 막 집안이 들썩거리민서, “이런 일이 세상에 어데 있을 끼냐?”(강감찬 장군, 거창)
- ㄹ. 그레가 등더리를 탁 때림서, “이 사람아, 여게 있는가?” 그런께 저 여자가 대감을 보고 절을 너붓이 한다.(그림의 열녀, 의령)

(24)는 ‘-면서로’가 쓰인 예이고 (25)는 ‘-면서’가 나타나는 예이다. 경남방언에서는 ‘-면서’만 쓰는 경우는 드물고 ‘로’가 첨가된 ‘-면서로’ 형으로 쓴다. 이는 ‘-면서로’가 경남방언에서 어머니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 어머니에 ‘로’가 첨가된 형태를 살펴보았다. ‘로’가 첨가된 어머니는 공통적으로 ‘로’의 의미역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머니이다. ‘로’가 첨가된 어머니는 말할이가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썼으며, 이후 화석화한 채로 어머니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어휘화

양태조사로 문법화한 ‘로’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기도 한다. 어휘화된 것에는 부사와 감탄사가 있다. ‘로’가 어휘에 화석화되어 새로이 형성된 어휘

는 경남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이나 공용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양태조사 ‘로’가 화석화된 어휘에는 부사와 감탄사가 있다.

1) 부사

우선, 의미역조사 ‘로’는 아래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덧붙여 쓰이기도 한다.

- (26) ㄱ. 조석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다¹⁷⁾
 ㄴ. 시험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로’는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려 아래와 같이 정도성을 드러내는 부사가 되기도 한다.

- (27) ㄱ. 그곳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ㄴ. 바람이 때때로 불어오는 곳

‘로’는 ‘방향·지향’의 의미를 지닌 부사 뒤에도 붙어 선행하는 부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 예로는 ‘그리로, 이리로, 저리로’가 있다. 아래 (28)에서 부사 ‘그리’는 아래와 같이 ‘그곳으로, 또는 그쪽으로’의 의미로 방향성을 지닌 부사이다. 이런 ‘그리’에 조사 ‘로’가 덧붙은 것은 ‘로’의 의미역이 ‘방향·경로’인 것과 관련이 있다.

- (28) ㄱ. 주문하신 물건은 즉시 그리 보내 드리겠습니다.
 ㄴ. 주문하신 물건은 즉시 그리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쓰인 예를 재인용하였음.

선행성분이 양태부사인 경우, 양태조사로 문법화한 ‘로’가 첨가되어 쓰이다가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기도 한다. 즉 아래와 같이 일부 양태부사 뒤에 ‘로’가 첨가되어 쓰인다. ‘로’가 첨가되면서 양태부사의 의미는 더욱 강조된다.

- (29) ㄱ. 이 문제는 좁체 풀리지 않는구나.
 ㄴ. 이 문제는 좁체로 풀리지 않는구나.

‘이만저만해서는, 여간하여서는’의 의미를 지닌 양태부사 ‘좁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호응하여 ‘어떤 수준 이상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29ㄴ)의 ‘좁체로’는 ‘좁체’가 지닌 ‘변화하는 상황’이 ‘변화 방향을 동반해 ’좁체’보다 변화를 강조하는 의미를 낳는다. 이는 곧 ‘좁체’에 결합한 ‘로’가 ‘좁체’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양태조사)을 가리킨다. 이후 양태조사 ‘로’가 결합한 ‘좁체로’는 화석화하여 어휘가 된다.

- (30) ㄱ. 그의 행동은 {정말, 진짜, 참말, 참} 멋졌다.
 ㄴ. 그의 행동은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참으로} 멋졌다.

(30)의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참으로’ 등도 ‘좁체로’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30ㄱ)의 부사들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상태상황임’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30ㄴ)에서 보듯, ‘변화 방향’의 의미를 지닌 양태조사 ‘로’가 결합하여 그 정도성이 강조된다. 즉, ‘로’가 결합됨으로써 선행하는 부사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며, 이후 ‘로’가 결합된 채로 어휘화한다.

2) 감탄사

부사어는 감탄사로 더 문법화하여 쓰이기도 한다. 앞서 (30)에서 살펴보았던 부사어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참으로’ 등은 아래와 같이 감탄사로도 쓰인다.

(31) 내일 폭우가 쏟아진다니네. /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참으로}!

(31)의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참으로’는 새로운 소식을 듣고 놀랐을 때 쓰이는 감탄사이다. 이 경우, ‘로’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도 감탄사로 쓰이지만 ‘로’가 결합한 형태는 감탄의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지시대명사 ‘뭐’와 ‘어디’는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응답말이나 담화표지로 실현되기도 한다. 아래 ‘뭘(요)’는 대단치 않음을 겸손하게 드러내는 응답말로 쓰인 예이다.

(32) ㄱ. 자네 크게 성공했네그러./ 뭘요. (박완서 단편선)

ㄴ. 어저께 간조오도 받았구 해서…제가 소주 한잔 대접하고 싶어서…/
뭘…됐어.(가야 할 나라(상))

(33) 너 이번에 1등 했다면서, 대단해. / 뭘로.

공용어의 ‘뭘(요)’은 ‘뭐’에 대격조사가 ‘리’로 축약하여 결합된 형태로 겸양이나 겸손의 응답말로 쓰인 것이라면, 경남방언에서는 ‘리’ 대신 ‘로’가 붙은 ‘뭘로’가 겸양의 응답말로 쓰인다.

(34) ㄱ. 그래, 그러믄 니가 니 어무이한테 불효하다는구나/ 어데, 안 그렇습니
더(의령)¹⁸⁾

ㄴ. 와, 와, 갈라 카노. 자고 가거라./ 어테예, 형님, 갈랍니다. (착한 제수, 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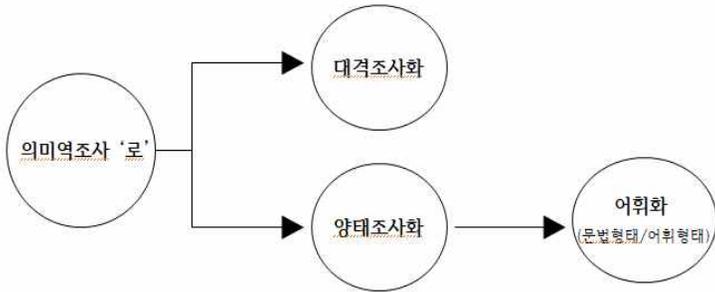
경남방언에서는 ‘어디’가 부정의 응답으로도 쓰인다. 위 (34)의 ‘어테’는 ‘어디’에 ‘에’를 첨가한 형태로 ‘아닙니다’라는 부정의 응답말로 쓰인 예이다. 주로 자신의 말을 강조할 때 쓰이는데 이를 더욱 강조하게 되면 아래 (35)이나 (36)와 같이 ‘어텔’, ‘어테로’ 형이 나타난다.

(35) 임정애: 그러지 마세요! 나만 인심 사나워져요!

마산댁: 어텔예! 지 마음이라예! (SBS 덕이 31회)

(36) 오늘은 먹을 수 있나? / 어테로, 오늘도 못 먹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의미역조사 ‘로’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18) 이기갑(2003:566)에 쓰인 예문 인용.

IV. 마무리

의미역조사 ‘로’는 후행동사의 수단·도구, 방향이나 경로, 지위·신분, 원인이나 이유, 변화의 결과(변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조사 ‘로’는 공용어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지만, 방언에서는 더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이에 ‘로’의 쓰임과 관련하여 경남방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로’는 경남방언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쓰인다. 하나는 의미역 대신 문장 구조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인 구조격조사(문법격조사)로 쓰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역이 추상화되어 선행성분의 의미 기능을 강조하는 양태 기능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의 문법화 과정은 ‘로’가 지닌 의미역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닌 ‘로’는 선행성분과 유사한 의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에 구조격조사로 쓰이거나 양태 기능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태조사 ‘로’는 선행성분에 결합된 채로 새로운 어휘를 형성하기도 한다. 문법 형태인 ‘-니까’, ‘-어서’, ‘-게’, ‘-면서’와 같은 어말어미와 어울려 쓰이다가 어미화(준어휘화)한다. ‘로’가 첨가된 어말어미는 공통적으로 ‘로’의 의미역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미이다. ‘로’가 첨가된 어미는 말할 이가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썼으며, 이후 화석화한 채로 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태조사 ‘로’는 일부 부사나 감탄사(응답말)와 어울려 쓰이다가 어휘화하기도 한다. ‘로’가 어휘에 화석화되어 새로이 형성된 어휘는 경남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방언이나 공용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남기삼·김지은, 「조사 ' -로 ' 의 용법에 관한 언어론적 연구 (1)」, 『동양학』 제22집 1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2, pp.1-23.
- 이기갑, 『국어방언문법』, 태학사, 2003.
- 이진은, 「조사 '로'의 문법화-경남방언을 중심으로」,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임동훈,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제43집, 국어학회, 2004, pp.119-154.
- 임지룡, 『한국어의미론』, 한국문화사, 2018.
- 정영주, 「진주지역어의 가림자리토씨 '로/을' 연구」, 『겨레어문학』 제13집, 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9, pp.35-40.
- 황국경,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논항구조 변화 연구(2)」 『이중언어학』 제27집, 이중언어학회, 2005, pp. 253-278.
- _____, 「경주 지역어의 대상성 '-로' 구문에 관한 연구-조사 '-로'와 '을'이 기원적으로 이형태 관계였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제50집, 한국어학회, 2011, pp.261-288.
- 황병순, 「조사의 문법화 양상과 결합 원리」, 『배달말』 제43집, 배달말학회, 2008, pp.97-119.
- _____, 「양태조사 연구-문법화를 통해」, 『한글』 제290집, 한글학회, 2010, pp.203-230.
- _____, 「방언 어말어미의 형태적 특성 연구-입말 형태 화석형을 중심으로-」 『배달말』 제51집, 배달말학회, 2012, pp.1-44.

Abstract

Grammaticalization and lexicalization of 'Ro' as Semanitic case
Josa around Gyeongnam local language

Yang, Ji-hyeon · Hwang, Byung-sun

'Ro' as Semanitic case Josa is a following verb used to describe means, tools, direction, route, position, identity, reason, causes, or result of changes. It is used for various function as Josa 'Ro' but in Gyeongnam local languages, it has even more functions.

In Gyeongnam local language, 'Ro' is grammaticalized in two types. First is being used as accusative Josa which functions in relation to sentence structure instead of as Semanitic case. The other function is it is used as modal Josa emphasizing meaning of precedent material by abstracting its Semanitic case. Such grammaticalization of 'Ro' is related to Semanitic case of 'Ro.' This 'Ro' with various meanings could be used as a similar function with proceeding term.

'Ro' acting as modal Josa, it forms a new vocabulary by added to the procedent term and being fossilized. That is, it is being used at the end of a word such as '-nikka', '-oeseo', '-ge', '-myeonseo' and become an ending word (semi-lexicalization). What is more, it is combined with adverb or exclamation words (response) to be lexicalized. The reason for format with 'Ro' becoming lexicalized is because there is relationship between precedence term of 'Ro' and meaning of 'Ro.'

Key Word : Gramaticalization, Lexicalization, Modal Josa, Semanitic case Josa, Structural Josa, Accusative Josa

양지현(제1저자)

소속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jh6211@hanmail.net

황병순(교신저자)

소속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bshwang@gnu.ac.kr

이 논문은 2019년 5월 10일 투고되어
2019년 6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6월 12일 게재 확정됨.